

LG필립스LCD, 중국이 최대 수혜

LCD TV 선호로 시장 급속확대 ... 중국 TV 생산기업 최대 구매선

LG필립스LCD가 새로운 중국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.

11월1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10시35분 현재 LG필립스LCD는 전날보다 4.76% 오른 5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.

주가 급등은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과 함께 LG필립스LCD가 중국 소비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최근 잇따라 나온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.

현대증권의 김동원 애널리스트는 “연평균 12-14% 성장하는 중국 소비시장에서 LCD TV와 같은 프리미엄 가전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층들의 선호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2009년 아시아 LCD 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세계 LCD 시장의 36%를 차지해 31%인 북미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며, 2010년에는 중국 단일시장이 세계 시장의 20.5%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.

대신증권의 반종욱 애널리스트는 “중국 TV시장에서 LCD TV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말 10%대였으나 2007년 3/4분기 말에는 25%까지 늘어나며 빠르게 브라운관 TV를 대체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

LG필립스LCD가 성장의 최대 수혜주가 되는 이유는 LG필립스LCD가 중국 토종 TV 제조기업들의 LCD 패널 구매선 중 최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.

중국 상위 6대 TV 제조기업들의 LCD 패널 구매선 중 LG필립스LCD가 차지하는 비중은 30.8%로 CMO(27.3%), AUO(16.6%) 등 대만기업들을 앞서고 있다.

CJ투자증권의 박상현 애널리스트는 “2008년 Beijing 올림픽 개최는 중국의 LCD TV 수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”며 “앞으로 미국보다는 중국 등 아시아시장이 LCD 수요 성장을 이끌게 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
다만, LG필립스LCD 주가의 단기 급등, 12월 이후 LCD 패널 가격 하락 전망, 2008년 1/4분기 LCD 패널 시장 공급과잉 가능성 등은 주가의 단기 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11/14>